

마음의 소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지구상의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목차

- P 1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켄쿄/인권협)란?
- P 2 가맹단체 소개
- P 3 SDGs란?
- P 4 기고문 시마다 타에코 씨
- P 5 부회 소개
- P 6 전문위원회의 활동 소개
- P 7·8 인권협 사업을 소개합니다
- P 9·10 제40회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 P 11 인권 교육 DVD · 서적 안내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켄쿄/인권협)에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이벤트를 통해 사카이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펼쳐지게 될 다양한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권협 홈페이지

<http://www.jinkenkyo.jp>



편집 · 발행
(2020년 2월 발행)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찌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내

TEL 072-221-9280 FAX 072-228-8070

URL <http://www.jinkenkyo.jp>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겐교/인권협)란?

인권협은 부라쿠(部落/부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각종 시민단체, 기업, 종교법인 등과 같은 많은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 인권협의 심볼마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인권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조직도 · 임원

- 회 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부회장** 쿠보 테루오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부회장** 야마구찌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부회장** 코바야시 리에코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 부회장** 시라모토 타다시
(사카이시 보육회)
- 부회장** 카사이 유타카
(사카이 시립 교원장회)
- 부회장** 타케다 신이찌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 회 계** 코야마 토시미
(사카이시 경쟁보호여성회)
- 회 계** 오구라 미즈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지구위원회)

인권교육추진 오사카협의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대표자 회의
전문위원회

상임간사회

오사카 기업인권협의회

사카이 공공직업안정소

사카이 노동기준감독서

공익재단법인
사카이시 취업지원협회

가맹단체

학구 추진위원

기업부회

종교부회

인터유스
사카이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연락회

도오와(同和/동화) 문제에
대처하는 오사카 종교인
연락회의

가맹단체

인권협에는 29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 사카이시 교육회
-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이시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 사카이 시립 교원장회
-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연합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 사카이시 경쟁보호여성회
-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이시 시립 유치원연합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보육회
-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연합회
-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자유 도오와(同和/동화)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 · 과부복지회
- 사카이 상공회의소
-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지구위원회
-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 오사카 부립학교장협회 제8지구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는 1955년 3월 사회교육 심의회의 답신에 기반하여 1956년에 사카이시 전체에서 조직이 결성된 신생활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카이시 신생활운동 추진협의회라는 명칭 하에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1976년 9월 1일 현재의 명칭인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카이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한 이후인 2007년 5월에 미하라구 자치연합협의회가 가맹하여 현재의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학구 자치연합회를 중심으로 방법과 방재를 비롯해 인권 교육, 육아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 고령자 안부 확인, 세대 간 교류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서로가 친밀하게 교류하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갈 수 있는 '지역의 연계'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각지에서는 태풍이나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더욱더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해 시 만일에 대비해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역의 방재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지역 활동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념 아래 지역 주민을 비롯해 어린이 모임과 PTA, 학교·유치원 등과 연계하면서 지역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본 협의회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저마다 정든 지역에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지역 활성화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자치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는 사카이 시립 학교·유치원 PTA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이하 '각 학교·유치원 PTA'라 함)로 조직된 임의단체입니다.

또한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는 각 학교·유치원 PTA 상호 간의 연락·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카이시 PTA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 관련 단체로서의 공공성을 지닌 단체이기도 합니다.

원래 PTA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노무적 원조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학부모회, 보호자회, 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폐쇄한 상황에서 1947년 교육기본법 제정에 따라 일본 전국의 학교·유치원에서 '학부모와 선생님의 모임', 이른바 PTA가 조직되었습니다. 사카이시의 각 학교·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육성을 기원하면서 잇따라 PTA가 결성되었고, 1949년에는 이러한 PTA가 모여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는 "말 걸기, 지켜보기, 참견하기! 여러분이 키우는 사카이의 아이들"-가정, 학교·유치원, 지역에서 만드는 연결고리-를 활동 목표로 삼아 아이들 개개인의 건전한 성장을 기원하며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는 인터넷 관련 문제 등과 같이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 학교·유치원, 지역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손잡고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립해 사회로 나갈 아이들이 수많은 역경을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PTA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와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은 참견'

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연계하고, 말을 걸고, 지켜보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PTA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크게 달라지는 가운데 PTA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에 사카이시가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우리도 SDGs에 관심을 두고 SDGs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17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는 깃발을 바꾸어 '사카이시 P×SDGs'를 앞세운 마크로 그 자세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청소 활동 실시, '연계'를 의식한 SDGs 손수건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등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SDGs를 의식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로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배들이 가꾸어 온 '건전 육성의 마음'을 소중히 받들면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15년 동안 빈곤과 불평등·양극화,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자연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세계 공통의 17개 목표를 말합니다.



SDGs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
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카이는 2018년 6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SDGs 미래도시'로 선정돼 SDG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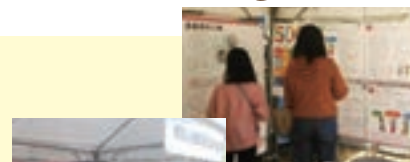
SDGs는 '2030년의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 = 다양한 과제가 해결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이며, 그 아래에 169개의 구체적인 과제와 232개의 지표가 정해져 있어요.



인권협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SDGs를 널리 알리는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SDGs를 알리기 위해 SDGs 패널과 쉴도 만들었습니다.

SDGs의 목표는 지금 우리 세계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사카이시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하면서 폭넓은 인권 교육·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등 SDGs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DGs 패널 전시 모습



SDGs 쉴

학대의 수렁에서 벗어나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화풀이하지 않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일반재단법인
아동학대방지기구 오렌지 CAPO 이사장

시마다 타에코

누가 봐도 풍요롭다고 생각할 일본에서 학대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몹쓸 부모다’ 혹은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무렵까지 6년 동안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혼 상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고비도 있었지만, 두 명의 오빠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는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도 물론 도움이 필요했지만, 다정했던 시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과 폭언으로 물들어가면서 변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27세의 여자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이제야 만날 수 있었던 저는 당시까지의 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은 해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폭력을 행사하여 온 아버지에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라며 구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 졸업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짜증이 나면 화풀이하기 좋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고 화풀이하고 맙니다. 그런 감정은 버릇이 되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고 말았을 때 사과하지 못하고 “이건 가정교육이다”라고 말해 버리면, 점점 그 감정에 가속도가 붙어 학대로 발전하고 맙니다.

화가 나면 몸에서는 특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에서 분비됩니다. ‘싸움이나 도망이나(fight-or-flight)’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며, 동물이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잡아서 먹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 핏속으로 방출되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올리고, 동공을 넓히고, 포도당의 혈중농도(혈당치)를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흥분 상태가 된다는 것이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동안 반사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몸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도달하고 소멸할 때까지의 시간은 길어도 약 6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6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6초 동안을 보내고 아드레날린이 사라진 다음에 화를 낼지 말지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에 따라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 정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트레이닝으로 학대는 없앨 수 있습니다. 정신을 안정시키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심호흡을 통해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심호흡을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킵시다.

‘평화와 공평을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SDGs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권협은 기업부회, 종교부회, 인터유스 사카이,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연락회의 4개 부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부회, 인터유스 사카이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업부회

부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주식회사 에이코오)

회원 사업소 수 / 429사업소 (2019년 12월 현재)

기업부회는 ‘하지 않는다, 하도록 두지 않는다, 취업 차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의 입장에서 취업 차별의 철폐와 도오와(同和/동화)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서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부회는 사카이 시내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에 관한 각종 연수회 개최, 취업 차별 철폐 월간 역전 계몽 활동의 실시, ‘기업부회 소식지’ 발행 등 취업에서의 기회균등 보장 및 직장에서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인권을 테마로 한 강연회의 개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 견학, 평화 관련 시설에서의 연수 등 인권의 기본적 이해와 타자 이해를 심화하는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부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전형은 물론이고 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유스 사카이

회장 시라모토 타다시



인터유스 사카이는 ‘인권 교육 활동’, ‘교류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3가지 중점 과제로 삼아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의 장을 제공하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경험함으로써 뛰어난 인권 의식과 국제감각을 습득하여,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전신인 ‘국제 청년의 해 사카이연락회’에서 시작해 35년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4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가해 왔습니다. 인터유스 사카이를 경험한 청년 중에서는 그다음의 진로로서 JICA(국제협력기구) 등의 JOCV(청년해외협력대) 등과 같이 국제공헌의 길로 깊이 들어선 사람, 더 많은 공부를 위해 타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한 사람, 공공복지의 길을 선택하여 사카ishi 직원이나 간호, 교직의 길로 들어선 사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커리큘럼에는 전기 연수로 세계의 인권 상황과 젠더,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아이누 민족 등에 대한 인권 연수를 실시하고, 여름에는 대만 원주민족 사람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스터디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를 직접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 투어를 포함한 다양한 연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널리 시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보고 집회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육성을 위해 활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전문위원회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전문위원회에서는 도오와(同和/동화) 문제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과제 등에 관하여 먼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과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의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 시바하라 코오지 씨(일반재단법인 오사카부 인권협회 업무집행이사 겸 사무국장)의 진행에 따라 결혼이나 인터넷과 관련한 부라쿠(部落/부락)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월드 카페 방식으로 자기 생각과 느낀 점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참가자로부터는 ‘올바른 지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차별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 시라모토 타다시(사카이시 보육회)

【월드 카페란】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4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그룹을 국가로 가정하여 멤버 편성을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와 섞여 의견을 교환하며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수법을 말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전문위원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전문위원회에서는 자신과 밀접한 문제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점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의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 폭력의 종류, 원인, 공통점에 대해 “SDGs”에서 생각하는 폭력 없는 사회로~체벌, 학대, 집단 따돌림, 가정폭력, 성폭력~을 테마로 월드 카페 방식으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행동한다’, ‘손자 손녀에게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싶다’ 등과 같은 의견이 나왔으며, ‘모두가 함께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모두가 함께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인권에 대해 생각해나가고자 합니다.

대표: 야마구찌 노리코(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전문위원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전문위원회에서는 당사자분들의 초청 강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이해하고 계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의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 8050 문제의 현황과 예방에 대해 실제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버린 당사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당시의 심정과 사회 복귀까지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권 교육 활동의 장을 넓혀 나가하고자 합니다.

대표: 마쯔카와 료오토쿠(인권협 종교부회)



【8050 문제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화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사회문제. 젊은이의 히키코모리가 장기화됨으로써 부모도 고령자가 되어 소득이나 병간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0대 부모와 50대 자녀의 가족관계 속에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8050 문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체 연수회

2019년 8월 21일 장소: 사카이시 교육문화센터(소피아 사카이)

전체 연수회 제1부에서는 ‘학대의 수렁에서 벗어나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화풀이하지 않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를 테마로 시마다 타에코 씨(일반재단법인 아동학대방지기구 오렌지 CAPO 이사장, 효고현 아동학대 등 대응 전문 어드바이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연했습니다.

또한 제2부에서는 각 전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분과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분과회는 월드 카페 방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 분과회는 강사를 초빙한 강의 형식으로 분과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의 ‘전문위원회의 활동 소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읽고 계십니다

구민 축제

매년 각 구청이 실시하는 구민 축제로, 인권에 관한 패널 전시를 하여 인권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분이 오셔서 진지하게 패널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일부 구민 축제에서 에코백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부스를 방문한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오리지널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축제 등에서 인권협의 활동 모습을 보시게 되면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그렸나요?



인권을 지키는 시민 모임

2019년 12월 15일 장소: 호텔 아고라 리젠시 오사카 사카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인권주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인권 존중의 기운을 더 넓혀 나가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제41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모집한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 수상자 표창과 작품 발표, 인권 의식과 국제감각을 갖춘 청년을 육성하는 인터유스 사카이에 의한 해외파견단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2부에서는 ‘여성의 빈곤, 아동의 빈곤’을 테마로 칸바라 후미코 씨(사회과학박사 고베가쿠인대학 현대사회학부 학부장, 교수)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칸바라 후미코 씨의 강연 모습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 시내 7개 구에서 학구 추진위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각 구에서 아래와 같이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의 참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	개최일	테마	강사
키타	10월 2 일(수)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이케가야 케이스케 씨 (NPO 법인 생활 꾸미기 네트워크 키타시바)
히가시	10월 28일(월)	‘인권을 살리는 도시 구성에 대하여’	
사카이	10월 3 일(목)	여성의 인권	유키타 주리 씨 (여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미하라	10월 10일(목)	‘가정폭력에 대하여’	
미나미	10월 24일(목)	인터넷과 인권	이시카와 찰리키 씨 (NPO법인 나라 지역의 학습추진기구 이사)
나카	11월 18일(월)	‘인터넷과 인권에 대하여’	
니시	10월 25일(금)	고령자의 인권 ‘고령자 학대에 대하여’	미즈가미 쥘루 씨 (고베가쿠인대학 준교수)

픽업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인권을 살리는 도시 조성’

마을 주민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다 함께 생각할 것(의견 수집), 지역 외의 사람에게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 알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 구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배식 서비스 등과 같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역의 모두가 힘을 모아 실현한다. 아침 시장을 비롯해 모두가 가 보고 싶어 할만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역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차별의식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의 활동에 대해 들으면서 많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에 관하여】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 단위 자치회장, 학구 내 각종 단체위원, 학구 내에서 인권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 중에서 사카ishi 자치 연합협의회 학구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학구에서 인권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집에는 응모된 3,231점의 작품 중 특선작품 20점을 게재하였습니다.

작품집 홈페이지

<http://www.jinkenkyo.jp/past-message/>



부모와 자식의 모습(초등학교 3학년)

내 어머니는 어렸을 때 니글렉트를 받았다.
니글렉트란 ‘육아 방임’이라는 학대를 의미한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의 증조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내 어머니의 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에는 그다지 다니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빨래를 하거나 밥을 짓기도 했고, 감기에 걸려도 자기 혼자 이불을 펴고 잠을 잤다고 한다.
그리고 다 자란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많은 일을 하다가 내 아버지를 만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나랑 많이 놀아 주었다.
매일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고, 집은 항상 깨끗하다.
어머니는 형과 나, 그리고 여동생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란 장 보러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가자고 한다.

장애인과 인권(중학교 1학년)

나에게 있어서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의가 봐도 잘 모를 정도로 가벼운 ADD이기 때문입니다. ADD란 주의력 결핍 장애의 약자로, 그 이름대로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해 버리거나, 나는 아니지만, 소리에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차별이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친구가 만약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준 것 같습니다.
나는 뭔가 말쑥에 휘말려 들지 않는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친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취급도 받지 않는, ‘장애인이라서’와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학년이 되고 발달장애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던 나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아”라고. 숙제 한 장 하는 데에만 한 시간이 걸리고, 학교에서는 단체행동 때 매번

그래서 ‘아, 귀찮아’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함께가 준다.
그래서 나도 외로움을 잘 타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만 있거나 어머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없는 아이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학대에 관한 뉴스를 보면 정말 불쌍해서 무서워지기도 한다.
학대를 받아 죽은 아이도 있고,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TV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어른이 되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기쁠 거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처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지금도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내 어머니처럼 자신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실수한다.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스트레스가 폭발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드문 것도 아니란다. 개성이란다”라고. 그날부터 나는 장애를 의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전보다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내가 친구의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장애는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도 나는 친구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친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때로는 ‘특별한 취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돕지 말고, 서로 돕자’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즐겁게 보통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계속 보호만 받는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서 보호한다’ 또는 ‘고령자라서 돕는다’가 아니라 장애가 있든 없든 연령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마음껏 놀고 싶다(지원학교 고등부 3학년)

나의 부모님도 나도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동생들 중에도 몇 명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스릴 만점에 다 비일상을 맛볼 수 있어서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항상 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행인은 있습니까?”라며 비장애인이 함께 탈 것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때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뭔가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기 어려워서...”라며 난지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몸짓을 동원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보여주면서 “이건 차별이다”라며 명확하게 항의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모처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는데, 아무리 직원이라고는 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완곡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들리지 않으니깐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마음껏 즐길 수도 없어서 즐거운

마음과 실망감이 반 반 섞인 채로 놀이공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나 지진 등과 같이 뭔가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우리들과 같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등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동행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전에 해 주거나 인터넷으로 미리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놀이기구 바로 앞에서 동행하는 비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는 일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또 정말 그런 이유라면, 긴급사태에 대비해 대피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미리 목적지를 명확하게 보드에 적어서 지시하는 등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라도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청춘(성인)

나는 1941년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코하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으로 네 살 때 오사카 공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도망쳤던 것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집이 불타 사카이시로 왔습니다. 공습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비행기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가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만 아홉 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일과 여동생 돌보는 일을 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 당시의 집안일은 뭐든지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먼저 불부터 지펴야 했습니다. 물론 빨래도 손으로 했습니다. 집 밖에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는 손빨래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의 직물회사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은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기는 했지만, 직장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중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즐거운 듯이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왜 나만 중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위 사람들

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근처 초등학교에서 야간 중학교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간 중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항상 “밤에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무렵 남편은 자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9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간 지나서야 야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만 70살이었습니다. ‘공부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나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선생님들은 무슨 과목이든 다정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공부하면서 특히 재미를 느낀 것이 국어와 사회입니다. 나는 원래 책을 좋아해서 전기나 자서전과 같은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건너뛰고 읽거나 사전을 찾으면서 읽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어려운 한자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사카이의 역사도 알게 되었고, 교기(行基)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밝아졌습니다. 학생회 임원이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긍정적인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청춘’입니다.



사카이시 인권추진과에서는 인권 교육 DVD를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서적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DVD는 일본어 음성만 수록되어 있으며 외국어 더빙이나 자막은 없습니다.

문의처는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DVD



더불어 사는 우리의 미래

도오와(同和/동화) 문제

‘부라쿠(部落/부락)

차별해소추진법’의 목표(38분)

부라쿠(部落/부락) 차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부라쿠(部落/부락) 차별해소추진법’이 제정된 현실적 배경과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차별의 실태를 밝히는 한편, 피차별 부라쿠(部落/부락) 출신이라는 점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젊은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서서 인터넷 사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부라쿠(部落/부락) 문제’와 관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DVD



전쟁 체험 증언집

평 화

vol.1, 2, 3, 4

(39분, 26분, 28분, 28분)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사카이는 5차례에 걸쳐 공습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희생된 사카이 대공습의 기록이나 사진과 더불어 당시 사카이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전쟁 시기의 생활과 공습 피해의 모습을 증언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DVD



‘노숙자’와 만나는 어린이들(30분)

어린이의 인권

젊은이와 어린이가 노숙자를 습격하는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오사카 카마가사키에 있는 ‘코도모노사토’가 실시하는 ‘어린이 밤 순찰’ 활동을 축으로 하여, 참가한 어린이들의 변화, 노숙자 스즈키 씨의 일, 생활, 심정을 살펴봅니다. 이 작품에서는 노숙자 습격 문제를 통해 갈 곳(집) 없는 어린이들이 약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BOOK



※서적 대여는 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 | |
|------------------------------|-----------------|
| ● 학대의 수렁에서 벗어나 (마이니치신문 출판) | 시마다 타에코/저 |
| ● 직장의 LGBT 독본 (실무교육 출판) | 야나기사와 마사카즈 외 저 |
| ● 인권이란 무엇인가? (해방 출판사)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편 |
| ● 알기 쉬운 스포츠와 젠더 (미네르바 서적) | 이이다 타카코 외 저 |
| ● 알고 계십니까? SDGs | |
|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30년 목표 (사이라 서적) | 제작협력 일본 유니세프협회 |

사카이시에서는 ‘사카이 세이프 시티 ·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중 하나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상담 · 지원 체제의 충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물이해를 줄이기 위한 계몽 활동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